

상담- 유의사항

[인쇄 유의사항]

- 작업 과정에서 자잘한 스크래치, 작은 점 등의 인쇄, 눌림 자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쇄 후 재단시 재단 밀림 현상으로 재단과 제본이 이루어질 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작업하고, 물리적으로 다루는 작업이므로, 100% 흠과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적인 결과물이 100%라면, 결과물은 70-80%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셋인쇄 유의사항]

- 오프셋인쇄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종이가 쌓이므로, 배경 및 색이 진하거나 넓은 경우, 겹쳐진 다른 종이에 잉크가 조금씩 묻어날 수 있습니다.
- 비도공지(언코티드) 인쇄일 경우, 종이가 잉크를 흡수하므로 색 톤이 조금씩 흐려지고 탁해집니다. (모조지 등)

[오프셋인쇄 데이터 검수]

- 인쇄 전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인쇄용으로 변환된 PDF 파일을 드리면서 최종 검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고객님의서 이 파일에 대해 꼼꼼히 확인을 해 주시면, 인쇄 단계로 넘어갑니다.
- 인쇄용 PDF가 인쇄의 기준이 되므로, 검수 이후의 데이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파일 확인하신 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풀제본 유의사항]

- 풀제본은 원래 뜯어 쓸 수 있는 엽서책 용으로 만들었던 제본 방식입니다. 풀을 조금 강한 것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지만, 다른 일반적인 제본보다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사선으로 뜯거나, 충격을 받으면 내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조심히 사용하면 책으로 사용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 책을 펼칠 때 좌우 이어지는 이미지는 1-2mm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풀이 페이지 사이에 조금씩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철제본 유의사항]

- 인쇄 및 작업 공정 중에 약간의 티나 약한 얼룩, 풀자국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수와 대수 사이에 풀이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 인쇄의 흔들림으로 인해 좌우 연결된 페이지가 조금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접지된 모서리 부분의 인쇄가 조금씩 터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출사철제본 유의사항]

- 대수와 대수사이에 풀 물음이 있습니다. 흰색 배경이 아닌 이미지의 경우 뜯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참조](#)

[옵셋인쇄 감리]

- 옵셋인쇄 색은 CIP* 시스템으로 기본값이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색 변경을 큰 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대의 일부 페이지를 보면서 색을 과하게 변경할 경우, 다른 대수의 색이 틀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 CIP(Cooperation for Integration of Processes in Prepress, Press, and Postpress)

- 구조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이나 모니터보다 실제 인쇄물의 색이 조금 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에 따른 색감차도 있고, 그 외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색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리를 통해 색의 농도 등을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는데, 아주 살짝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부분의 색감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종이 여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번 정도 조정한 값을 본 후, 더 이상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감리 시간이 잡혀도 인쇄소 현장 상황에 따라 30분-1시간 정도 인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옵셋인쇄 감리- 2대 이상의 감리]

- 보통 1대 1면 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의 대수를 보면서 색을 조절하며 감리를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쇄의 효율도 떨어지며, 무엇보다 인쇄 색감의 전체 톤도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감리를 볼 페이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파일의 페이지를 보시고 알려주시면, 그 페이지를 먼저 인쇄하게 됩니다.

[디지털인쇄 색 표현]

- 모니터의 색감과 인쇄의 색은 같지 않습니다. 모니터보다 인쇄의 색감이 보통 더 어둡고, 그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으려면 RGB가 아닌 CMYK로 작업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인쇄의 색은, 종이의 미묘한 색차이, 질감, 두께 등에 따라 달라지고(종이에 따라 프린터 설정도 달라집니다), 인쇄기마다 색상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며, 심지어 한 기계에서도 온습도나 소모품의 사용도 등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프린터의 색을 일정한 폭으로 유지하기 위한 색 맞춤(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하며 인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색이 쉽게 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 저희는 색을 변화시키기 위해 프린터의 설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한 이미지의 색을 변화시켰다가 다른 페이지의 색이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색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종으로 테스트인쇄를 해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이미지 혹은 일러스트를 여러 비슷한 색상으로 얹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데이터를 편집해 주시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등으로, 색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비 구간 설명]

저희가 책정하는 인쇄비는 총 페이지수 구간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바뀌는 구간 근처에서는 총 페이지수가 적어져도 오히려 단가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래 예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100p x 120원 = 12000원

- 110p x 100원 = 11000원

[별색인쇄]

- 별색인쇄는 따로 색이 있는 것이 아닌, 작업자가 임의로 조색을 하여 만드는 작업입니다.

- 목표한 색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색이라도, 종이에 따라 표현되는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판인쇄]

- 평판UV인쇄는 일반적인 인쇄보다 진하고 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을 보면 인쇄가 약간 거친 편입니다(잉크젯으로 흩뿌리는 방식). 그렇다고 작은 글씨가 아예 뭉개지거나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메탈종이]

- 메탈종이나 트래싱지는 구겨짐에 매우 취약합니다.

- 종이를 배송하고 다루는 과정 중에 약간씩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문 및 흠집 등의 자국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 들어갈 경우 메탈지는 스크래치가 날 수 있습니다.

[샘플작업]

-제작 과정에 따라, 샘플 작업 수량이 적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오프셋인쇄 또는 별색인쇄의 경우, 오프셋 기계의 잉크통을 교체하는 작업등이 필요하여 실제 제작과 같은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본작업과 동일한 샘플작업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디지털 인쇄로 레이아웃을 검토하는 정도로 샘플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작업물과 비슷한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 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